

## 동시대 원무의 상호문화성 연구\*

- 강강술래와 서클댄스를 중심으로 -

윤지현\*\*

I. 서론

II. 상호문화성과 두 개의 원무 전통

III. 동시대 원무의 상호문화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본 연구는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곧 춤추는 의미에 관한 질문을,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향유되는 두 원무(圓舞)의 연행 현장에 제기한다. 한국의 전통춤으로 오래 전승되어온 강강술래와 1990년대 문화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에 유입된 서클댄스(Circle Dance)<sup>1)</sup>의 연행 현장을 관찰하고, 참가자의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에서 두 원무와 한국 사회의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과 유럽이라는 이질적인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강강술래와 서클댄스는, 2020년대 현재 한국 사회에 공존한다. 두 원무는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연행자로 참여하는 공동체춤으로 향유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시간과 공간이 고도로 압축되어온 문화세계화(Globalization of Culture)로 세계의 각 지역 내부는 다양한 춤과 춤의 향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지역의 전통춤과 지역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질적인 춤과 춤 문화가 일상적으로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문화적 공간’이 되었다(Kraidy, 1999; Strelitz, 2004; 윤지현, 2013). 이질적인 원무의 공존은, 춤과 춤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온 세계화의 결과이며, 문화적 배경과 향유 양태가 다른, 두 원무의 참여자에게서 관찰되는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은, 각 원무와 연행이 일어나는 지역, 곧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관계에서 기인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무 참여자의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을 각 원무와 한국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간 접변과 혼종화(Hybridization)의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사례로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향유되는 두 원무의 연행 현장을 관찰하고, 참여자 경험을 조사함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8732)

\*\*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무용학과 강사, jhydance@gmail.com

1) 서클댄스는 영성을 중시하는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 행해지며 ‘Sacred Circle Dance’로 불리기도 한다. 이를 국내에서 ‘신성원무’ 혹은 ‘신성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로써 원무 전통의 이질성을 넘어 확인되는 춤 연행의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연행 현장을 대상으로 2020년대 원무 연행의 의미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두 원무의 연행 현장을 참여 관찰하여 원무 연행의 양상을 수집, 정리한다. 둘째 두 원무의 연행 양상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공동체춤으로 연행되는 원무 참여자의 원무 연행의 의미를 관찰한다. 셋째 두 원무의 참가 의미의 유사성에서 원무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련성, 곧 상호문화성을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먼저 두 원무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공동체춤으로서 두 원무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두 원무의 연행 현장을 관찰했다. 강강술래는 전승 지역인 전라남도 해안지역의 읍면 단위에 조직된 여성무용단의 활동을, 서클댄스는 서울 및 수도권에 조직된 서클댄스 연행집단을 중심으로 춤향유 현장을 참여 관찰했다. 이어 주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원무 연행의 양태와 참가자의 춤추는 의미 등 관찰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했다. 조사내용은 원무 연행의 의미를 정리하고, 연행의 유사성 확인을 위해 범주화하여 정리했다.

논의에 앞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용어인 서클댄스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무 일반을 총칭하는 영어 번역어인 ‘서클댄스’를 특정한 춤의 장르를 칭하는 의미로 사용함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강강술래 등 세계 전역에 전승되어온 원형 대형의 집단무는 한국어인 ‘원무’로,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 출현한 공동체 춤으로 세계화된 춤 장르는 ‘서클댄스’로 칭한다.

그런데 이 특정 장르로서의 ‘서클댄스’는 세계화와 국내 정착 과정에서 ‘신성원무(Sacred Circle Dance)<sup>2)</sup>’로도 불린다. 이는 서클댄스를 연행하는 다수 공동체의 활동이 종교적 영성(Spirituality)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유럽과 국내 선행연구의 다수도 ‘신성원무’, ‘신성무’를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서클댄스’를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신성원무가 공동체 활동의 일부인 영적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클댄스를 행하는 공동체의 다양한 지향과 실천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서클댄스 공동체의 활동은 영성 수행만이 아니라 평화, 치유, 생태, 환경, 여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제 및 실천과 관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춤 연행을 영적 수행으로 한정 또는 강조하는 신성원무를 사용하기보다는 공동체춤 연행의 포괄적 함의를 반영하는 서클댄스로 사용한다.

## II. 상호문화성과 두 개의 원무 전통

### 1. 상호문화성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해진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 간 경계를 주목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세계화

2) 준 왓츠(June Watts) 등 서클댄스의 세계적 지도자 다수는 서클댄스와 신성원무(Sacred Circle Dance)를 혼용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Watts, June(n.d.), "About Sacred Circle Dance", *Circle Dancing*. <<https://junewatts.com/wwwcd.php>, 2024. 5. 10>. 한편 서클댄스와 요가,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네스카야(Neskaya)의 홈페이지의 경우, 서클댄스와 영적 수행을 구분한다. 이 단체는 활동의 목적을 “영혼과 육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인간과 지구의 물질적 육체 사이의 분열 치유”로 소개함으로써 서클댄스를 영적 수행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Rowan Scott(n.d.), Sacred Circle/World Dance, *Neskaya*. <<https://neskaya.com/about-circle-dance/>, 2024. 5. 10>.

맥락에서 지역 내부의 문화는 전에 없던 문화적 다양성, 곧 차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관찰된다. 과거로부터 전해져온 문화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지역 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경계와 층위에서 문화간 접촉과 교류에 의한 문화적 변용을 낳고 있다. 이로써 지역 내부의 문화적 복잡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들 현상을 이해하는 논의이자 정책적 지향으로 다문화(Multi-), 비교 혹은 교차문화(Cross-), 초문화(Trans-), 상호문화(Inter-) 등이 논의되었다. 동시대 한국 사회에 이질적 춤과 춤 문화가 공존하고, 이 현상의 범위와 복잡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호문화성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철학자, 램 아드하르 몰(Ram Adhar Mall)은 상호문화 철학의 개념을 논하며, ‘상호문화적 정신을 다양성의 인정(Mall, 2000, p. 15)’으로 정의한다. 그는 차이를 가치로 보고, 다양성의 인정이 상호문화적 정신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상호문화적 사유와 실천이란 ‘차이 속에서, 차이를 통해서, 차이와 더불어 존재하는 질서로 규정하고, 다른 목소리들이 합창하는 공간을 만드는 질서’(ibid., pp. 15-16)로 정의된다. 곧 다름이 공히 인정되고, 동등하게 공존하는 질서라는 것이다.

철학자 최현덕은 문화의 경계를 다루는 관점과 차이에 따라 다문화성, 초문화성, 상호문화성 등의 논의를 주목했다. 그는 이들 개념의 비교를 통해 상호문화 철학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상호문화성은 현상의 이해와 묘사를 넘어 차이와의 공존을 성찰하는 관점이자 실천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관찰한다. 그에 따르면 상호문화 철학은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주변의 창조적 잠재력의 현재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최현덕, 2009). 이어 중심과 주변을 가르거나 차별과 배제의 선으로 작동해온 문화간 경계를 상호문화 철학으로 극복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상호문화성은 문화다양성(타자성)과 동질성(보편성)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전제한 박인철(2017)은 문화다양성과 동질성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지가 상호문화성의 이해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의 상호문화성 논의가 주로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만 관심이 있고, 문화적 동질성 측면이 소홀히 다뤄진다고 관찰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과 동질성은 대립적 요소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요소이다. 동질성의 추구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일 뿐 아니라 타자성을 포용하는 데 긍정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이는 문화적 전통의 차이에도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을 관찰하는 본 연구가 두 원무와 동시대 한국사회의 상호문화성을 소환하는 이유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춤문화 내부의 복잡성을 떠올리면 다층화, 다원화된 문화적 경계가 존재하고, 차이와 공존하는 상호문화적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춤과 춤의 향유문화는 시간축을 따라 사회문화적 변용을 겪으며 지역 내부의 문화를 복잡하게 해왔다. 동시에 지리적 경계를 넘어 유입된 춤과 춤문화는 이질적 문화 내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변용을 겪는다. 한국의 강강술래는 한국의 지리적 공간 안에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현재에 이른 전통적인 원무이다. 전통사회에서 20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의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연행의 맥을 이으며 변용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와 강강술래의 상호문화성은 시간축에 따른 통시성으로 관찰된다. 반면 서클댄스는 유럽 각지에 전승되어온 원무 형태의 민속춤을 변용한 춤으로, 1970년대 이후 현재의 형태로 연행되었고, 1990년대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한국 사회에 유입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연행되는 서클댄스의 상호문화성은 20세기 후반 이후의 환경과 생태, 젠더, 소통과 치유 등 동시대 세계 시민사회의 의제 확산과 함께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성으로 관찰된다. 강강술래의 시간축의 상호문화성과 서클댄스

의 공간축의 상호문화성이 동시대 한국 사회의 여성공동체 춤 연행에서 교차하며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으로 관찰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 2. 두 개의 원무 전통

원형 대형의 집단무로 행해지는 원무는 인류사 초기부터 있었던 춤 형태이다. 원무 형태는 과거로부터 세계 각지에 편재하고, 지역의 공동체춤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무는 춤 전통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원무의 기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원무 전통의 출현이 고대 석기문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대 인류에게 원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루이스 에두아르도 베르니(Luiz Eduardo V. Berni)는 구석기 후기의 프랑스 가빌루 동굴의 동굴벽화에 찍힌 원형 배열의 발자국을 그 근거로 삼는다(Berni, 2011, p. 150). 그에 따르면 인류는 태초부터 춤을 춰왔는데, 신성한 의례로서의 원무는 기원전 35만 년에서 7만 5천 사이에 발생했다. 그는 또한 초기 원무는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계화된 원무인 서클댄스의 연구자이자 안무자인 로라 샤논(Laura Shannon)은, 이보다 늦은 신석기 시대의 원무 전통에 대해 고대 여신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Shannon, 2011; 2015, p. 4).

원무는 세계 전역에서 민속춤의 형태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춤 형태로 볼 수 있다. 원무 대형의 춤은 전통사회의 노동과 일상에서, 제의와 축제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했던 춤이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와 민족에게 원무는 지금도 민족문화와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춤으로 연행된다. 그리스의 고대 원무 7종(Olsen, Sarah Elizabeth, 2016)을 비롯하여 인도의 구마르춤(이병욱, 2004), 부리아트 공화국의 요호르춤(Nowicka, Ewa, 2016), 샤카 공화국의 오후오카이(Lukina, Angelina, 2018), 레바논의 다브케, 아프리카의 원무 등이 고대로부터 전해진 전통적 원무에 속한다.<sup>3)</sup> 우리나라의 강강술래는 이들 범주의 민속춤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아프리카, 인도, 한국 등 세계 전역의 지역 내부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원무와 달리 20세기 중반에 새로이 출현한 원무도 있다. 유럽과 영미 지역에서 1970년대 출현하여 세계화한 원무들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타말파 지역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지구의 춤(Planetary Dance)’이나 영국 핀드혼의 생태공동체에서 시작된 서클댄스 등이 이에 속한다.<sup>4)</sup> 근대 이후 새로이 탄생한 원무는 생태공동체 문화나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며 세계 전역으로 확산했다. 국내에도 타말파의 춤 철학을 실천하거나 핀드혼에서 싹튼 서클댄스의 기법으로 춤 공동체를 실천하는 활동이 있다.

20세기 근대화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일상 문화의 변화로 원무의 연행맥락은 변화해왔다. 이분법적 구분인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3) Ethel Dilouambaka(2023, 11, 29), “Traditional Greek Dances You Should Know About”, *Culture Trip*. <<https://theculturetrip.com/europe/greece/articles/7-traditional-greek-dances-you-should-know-about>, 2024, 02, 20>; Diane Jordan(2019, 07, 03), “Circle in African dance”, *The Circle Way*. <<http://www.thecircleway.net/articles/2019/7/3/circle-in-african-dance>, 2023, 10, 25>; 이병욱(2014, 4), “라자스탄지방의 민속춤-칸다리아 민속극장”. *춤웹진*. <[http://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545&board\\_name=rating&page=21](http://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545&board_name=rating&page=21), 2022, 10, 10>.

4) Gwyn Peterdi(2014), What is Circle Dance?, *World Circle Dance*. <<http://danzacircular.com/>, 2023, 01, 10>; Spencer Koffman(2020, 04, 04), “Planetary Dance-Introduction”. *Planetary Philosophy*. <<https://www.planetaryphilosophy.com/planetary-dance/>, 2022, 10, 25>.

주류와 소수 등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문화간 접변과 혼종화 양상은 동시대 사회문화의 일상에 전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원무는 어떻게 전승되고 연행되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강술래와 서클댄스는 춤의 전통과 출현 시기 및 출현 지역이 다르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함께 연행되고 있다. 두 춤의 유래와 연행 특성을 정리했다.

### 가. 강강술래의 전승과 향유

한국의 전통원무인 강강술래의 기원과 관련하여 고대 농경사회 시대의 파종과 수확 시기에 공동체의 축제에서 행해지던 놀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수용되었다. 이에 진수(233~297)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 마한편의 춤 묘사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후속 연구의 반론으로 논의 아래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오강원은 마한전의 춤동작 묘사가 강강술래의 춤동작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오강원, 2019, pp. 173-174). 대신 부리아트족의 춤인 요호르가 연행 시기, 장소 선택, 참여자, 연희의 구성방식과 춤동작, 대형 구성과 변형 등에서 강강술래와 유사하다고 관찰한다. 이어 고려 이후 몽고 문화의 유입 등 역사적 근거와 함께 부리아트족의 요호르가 강강술래의 발생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리춤인 강강술래는 마을 단위로 연행되어 온 민속춤이다. 이 춤은 한국 전역에서 행해진 것으로 관찰되고, 근대 이후로도 연행되었다.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그 기원과 전승을 주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이운선, 2004; 이정협, 2009; 이옥희, 2010; 김지원, 2017; 김혜정, 2017; 오강원, 2019).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등 서남 해안지역에 전승되던 강강술래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기에 현재는 이 지역의 강강술래 유형이 넓게 연행되고 있다.

한편 강강술래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지원을 받아 전승되는 과정에서 춤의 구성과 연행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 문화재 지정 이전에는 원무와 부수적인 놀이가 독립적으로 전해졌으나 1975년 민속경연대회에서 원무와 부수적 놀이가 결합되어 연행되었고, 그 이후 현재의 형태로 고착했다. 전통음악 연구자인 김혜정은 문화재 지정 전후로 강강술래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관찰한다(김혜정, 2017, pp. 127-128). 그에 따르면 현행 강강술래는 ‘해남강강술래’와 ‘진도강강술래’, ‘문화재강강술래’ 등 3개의 유형이 연행되는데, 이들은 유사하면서도 구성과 연행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의 강강술래는 마을 단위의 민속으로 춤의 구성과 양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 역시 각기 다른 지역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한다. 일례로 해남의 강강술래에는 진도의 강강술래에 없는 가마 등이 있고, 진도의 강강술래에는 해남의 강강술래에 없는 개고리타령, 발갈이, 손치기발치기, 덕석퍼기, 강아지타령, 옥단추 등이 있다는 것이다.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 연행되던 강강술래는 사라져왔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민속학자 이경엽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朝鮮郷土娛樂』의 기록을 빌려 경상도 영일과 의성, 황해도 연백은 물론 전라도의 내륙 마을에서도 강강술래가 연행되었음을 확인한다. 강강술래는 서남 해안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행되었다는 것이다(이경엽, 2009, p. 305). 또한 강강술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체 예술로서 강강술래의 전승과 향유도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공동체문화로서의 강강술래가 단절 위기에 처했다며, 강강술래의 현주소를 ‘전승력의 약화, 다양성의 상실과 획일화, 문화재 위주의 관심과 탈맥락화’ 등을 지적한다

(이경엽, p. 304).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의 강강술래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무형문화재 제도에 따라 일종의 지역 유형에 불과한 진도와 해남의 강강술래만이 대표성을 띤 강강술래로 전승되어 다양한 지역 유형이 사라지고 있다고 관찰했다. 그 다양성의 예시로 신안 비금도와 금초도 등의 도서 지역에서 행해진 남녀 공동의 강강술래를 소개한다. 남녀가 함께 참여했던 강강술래는 1990년대까지 연행되었다고 소개한다. 이처럼 현행 강강술래는 지역 유형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상실한 형식화된 텍스트로 남았다(이경엽, pp. 306-308). 또 다른 문제로 무대화한 공연 형태로의 탈맥락화를 언급한다. 현행 강강술래는 197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위해 경연 참여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연용 구성물인 강강술래가 민속춤의 원형으로 고착화된 점을 우려한다. 더욱이 민속문화가 아닌 무대를 위한 공연으로 무대화한 강강술래는 그 원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이경엽, p. 322).

한편 여성의 공동체춤으로서 동시대 향유 양상에 접근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들 중 김정희(2013)의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된 강강술래의 연행과 여성의 일상 문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근대화로 전통문화가 해체되는 가운데 민속춤의 연행맥락은 변화했다. 그러나 연행참여자의 춤 참여는 공동체 문화로서 강강술래 본래의 춤 연행 의미와 효과의 보편성과 교차함을 보여준다(김정희, 2013, pp. 100-111). 해남에서 강강술래 시연 참가 여성에게 ‘춤 추는 의미’를 묻자 “이것이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까?”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그 한마디는 여성들이 강강술래라는 일상의 예술활동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통과 연결의 심적 충만감을 경험함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김정희, p. 95).

민속학자 서해숙은 민속문화의 전통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변화함을 살폈다. 동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관찰하는데 전통의 계승과 문화예술의 복원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남성이 하지 않는 부분을 대신하거나 주체적으로 수행한다고 소개한다(서해숙, 2013, pp. 225-231).

## 나. 서클댄스의 발생과 세계화

서클댄스는 1976년 핀드혼생태공동체에서 시작된 춤으로 유럽의 민속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춤은 현재 세계 전역에서 연행되는데 국내에는 1990년대 후반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연행되고 있다. 신성원무로 불리는 서클댄스는 독일 출신의 발레마스터이자 안무가였던 베른하르트 보진(Bernhard Wosien)이 처음 소개한 춤 형식으로 알려진다. 보진은 1950년대 초 고대 민속춤에서 명상적인 춤의 특성을 발견한 이후 동유럽 전역에 전승되는 원무(圓舞)를 수집, 재구성하여 서클댄스를 만들었다. 이후 영국 스코틀랜드에 형성되었던 핀드혼생태공동체를 통해 세계에 전파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학습되고 연행되고 있다.

보진은 신성원무의 효과로 참여자를 치유하고, 명상적 수준의 의식으로 이동시키고, 신성과 연결하는 통합적 힘이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원형 대형의 민속춤에서 그 힘을 발견하고, 춤을 수집했다. 그가 핀드혼의 신성원무 무용가들과 일하게 되면서 신성원무는 세계적인 춤이 되었다. 현재 신성원무는 교육과 공적 행사에서 많이 연행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보진, 2021).

브라질의 신성원무 연구자인 베르니(Luiz Eduaredo V Berni, 2011)는 서클댄스에서 원의 의미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풀이한다. 원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춤 형식이며, 동시대에 연령과 인종, 출신 등과 상관없이 모두를 포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서클댄스는 춤과 명상을 연결하고,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라는 이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신성원무의 안무가이자 교사인 샤논(Laura Shannon, 2015)은 유럽 전역에 전해진 전통 원무와 신성원무의 기원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춤의 동시대성과 함께 단시간에 세계화된 요인과 여성공동체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다. 샤논은 유럽의 원무 전통을 고대 여신문화에서 살폈는데 여신문화 학자들인 카롤 크라이스트(Carol P. Christ), 리안 아이슬러(Riane Eisler), 마리아 김부타스(Marija Gimbutas) 등이 주장했던 여신문화의 창의성과 관대함, 환대와 연결성, 지속가능성과 상호 지원 및 평화의 가치가 원무 전통에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어 샤논은 춤을 추는 이유와 관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함과 친절함, 정의감에서 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문화와 원무 전통을 연결하는 샤논의 연구는 동시대 공동체춤으로서 서클댄스의 세계적 확장성의 근간으로 풀이된다.

서클댄스는 유럽의 전통적 원무의 구조와 방식을 따른다. 고대 여신문화의 전통과 방식을 전승한 유럽 전통원무의 구조와 방식은 춤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여성의 잠재된 지도자성을 드러낸다고 관찰한다. 일례로 그리스의 결혼식장에서 행해지는 의식무인 원무에 신부의 여성 친척들이 원무를 이끄는 전통을 소개한다(Shannon, 2015, p. 3). 이 과정은 신부와 신부의 가정에 대한 축복으로 행해지는데 이 과정은 여성 참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평소 수줍음으로 나서지 않는 여성도 이 상황에서 춤을 이끄는 지도력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전통은 다시 결혼식이 끝난 뒤의 파티에서는 신랑의 어머니가 춤을 이끈다. 신성원무로 전승되는 전통원무의 가치는 춤의 과정에서 여성의 지도력이 추동되고, 일상에서 가능하지 않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샤논은 세계화된 신성원무의 경험과 동시대 여성 지도력의 연관성 나아가 여성 지도력의 기회 및 참여 확장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서클댄스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 유입되어 연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 춤은 생태와 평화 주제의 시민사회단체 워크숍과 행사에 연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서클댄스의 메소드를 활용한 커뮤니티댄스와 무용치유 프로그램이 연계된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 서클댄스를 다룬 다수 선행연구는, 서클댄스의 특징에 대해 ‘공동체의 유대감’과 ‘신성한 원의 경험’, 춤추는 공간의 중심에 놓이는 촛불과 꽃장식 등의 센터피스(Center Piece)에 집중하면서 형성되는 ‘중심과의 연결성’, 의례를 통한 ‘통합과 결속’을 언급한다(Tursun G., Zukhra I., Aliya K., Saltanat A., Zarina M., 2016). 또한 신성원무를 구성하는 춤과 음악 등의 예술적 요소와 그 치유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Walter, O., 2011; Sheets-Johnstone, M., 2019).

국내 연구자에 의한 서클댄스의 치유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고헌정, 김정목, 최명선, 문소영(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서클댄스를 ‘신성원무’로 번역한 용어를 사용하고, 신성원무의 특징으로 수렴적 움직임을 살린 음악 기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관찰했다. 신성원무의 치유성과 신성원무 경험이 제공하는 심상 체험에 대해 참여자 면접조사를 실행했으며, 치유의 의미와 연구자의 성찰, 참여자의 자기 이해와 변화를 정리했다(고현정 외, 2019). 이들은 신성원무의 의례적 특성이 연구자와 참여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하는 심리적 울타리가 되고, 신성원무의 움직임과 음악이 상

상의 장을 만들며, 만다라는 심상을 담은 그릇이 되어 이미지를 객관화하고 통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무의 형태로 움직이고 체험하는 심상을 담아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계적인 틀을 벗어나 수평적인 질서로의 심리적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 3.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구성적 특징과 연행 형태의 비교

앞 절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국내의 현행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구성적 특징과 연행 형태를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구성적 특징과 연행 형태

구분	강강술래	서클댄스
구성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한반도의 고대 제의로부터 전승된 한국의 민속춤</li> <li>▶196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원형 또는 전형의 전승 원칙에 따라 춤의 구성 고정</li> <li>▶한국 내 지역, 마을 단위에 따라 다양한 춤과 소리 구성 관찰됨</li> <li>▶여성의 소리춤으로 공동체놀이로 구성</li> <li>▶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특히 동유럽 민속무용으로 전승된 원무를 1970년대 후반 이후 발레마스터인 베른하르트 보진이 재구성한 춤</li> <li>▶스코틀랜드 핀드혼 생태공동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음</li> <li>▶생태, 영성, 명상 등 동시대 담론과 연결하여 세계 각지의 많은 안무가에 의해 새로운 레퍼토리 생산</li> </ul>
연행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무형문화유산원, 강강술래보존회 등 국공립, 민간단체, 지자체 마을 단위의 강강술래보존회가 운영되며, 지역축제와 행사에 공연</li> <li>▶전문무용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이 연행주체로 참여</li> <li>▶여성공동체 활동인 동시에 민속예술의 전승자로서 책임 가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대 여신문화와 연결하여 공동체와 여성지도자성 주목</li> <li>▶영국 스코틀랜드 핀드혼을 중심으로 세계서클댄스의 날 행사 개최</li> <li>▶세계 전역에 서클댄스협회, 소규모모임 구성해 서클댄스 연행</li> <li>▶국내에는 서클댄스 연행을 하는 팀과 춤의 치유적 성격을 확장하는 전문무용인이 이끄는 연행단체 공존</li> </ul>
여성 공동체춤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이 연행의 주체가 되는 전통적인 놀이춤이자 소리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자 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전통 민속춤의 영향</li> </ul>
창의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춤문화의 원형으로 인식되는 현장의 즉흥성에서 지역별, 마을 단위별, 세대별 다양한 변용 가능함</li> <li>▶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으로 전형의 보존 전승 원칙 적용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민속춤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안무가가 있는 근대적 창작물로 유통됨</li> <li>▶새로운 레퍼토리의 창작과 유통이 허용되며, 국제 서클댄스 연행단체 연결망 존재</li> </ul>

## III. 동시대 원무의 상호문화성

### 1.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연행 현장

#### 가. 조사대상과 범위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향유되는 두 원무 전통의 연행 이유와 효과의 유사성을 도출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행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연행 현장에 대한 참여관



찰은 2020년 말부터 2022년 여름 사이 총 3회에 걸쳐 두 원무의 연행장소에서 수행했다. 강강술래 1회, 서클댄스 2회이며, 참여관찰 기록지를 작성했다. 향유 현장의 참여관찰로 향유자의 특성과 연행 내용 및 향유문화의 특성을 수집했다.

원무 연행 현장의 참여관찰에 이어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참여자 면접을 구두로 실행했다. 질문지는 원무 연행 참여 이력과 목적, 현재의 연행 빈도와 개인적 의미 등을 물었다. 면담 대상은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단체의 구성 초기부터 참여해온 지도자급 참여자 3인이다. 이들은 강강술래 참여자는 약 40년, 서클댄스 참여자는 약 25년 경력이다.

〈표 2〉 면접참여자 정보

면접참여자	연령	종목	경력
A	65	강강술래	40년
B	70	서클댄스	25년
C	71	서클댄스	25년

질문지는 각기 단체 현황에 관한 문항과 향유자 개인의 경험에 관한 문항, 두 부분으로 구성했다. 단체 현황과 관련하여 구성 시기와 목적, 참여자 특성, 충원방식과 운영 형태, 주요 활동, 활동 빈도와 방식 등을 묻고, 개인 경험과 관련하여 춤 활동의 참여 이유와 만족도, 춤 활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수집된 자료는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연행 참여의 의미와 효과를 도출했다. 이어 두 춤의 연행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 장은 두 춤의 참여관찰 조사의 개요와 참여자 면접조사 결과 등 수집된 자료를 정리했다.

〈표 3〉 면접 질문지 구성 내용

구분		질문 내용
단체 관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무 연행 단체의 구성과 연혁 소개</li> <li>- 주요 참여자 특성(규모, 연령, 지역 등)</li> <li>- 단체의 충원 방식과 유지 및 운영 형태</li> </ul>
	활동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무 학습 및 연습 진행 방식</li> <li>- 지도자와 구성원 관계, 학습방식</li> <li>- 정기모임의 빈도, 연행 공간</li> </ul>
개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무 연행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직업, 간강 증진, 취미</li> <li>- 원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친목 도모, 공연활동, 사회활동 외</li> <li>- 현재의 원무 연행 활동에 만족하는가</li> <li>- 원무 연행 참가를 통해 얻는 효과와 활동의 장점은 무엇인가</li> <li>- 다른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li> <li>- 원무 연행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ul>

본 연구는 제한된 횟수와 범위의 현장 조사 및 면담을 수행했으며, 여기에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와 그 함의도 제한적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여성공동체 춤으로 향유되는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의 연행 현장과 참여자를 대상 범위로 제한했다. 강강술래는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전문 무용수의 무대화된 공연물로 연행되는 등 공연예술화해왔고, 서클댄스의 경우도 전문무용가의 공연예술 활동과 연계되는 광범위한 연행 사례가 있다. 본 연구는 전문무용수가 주도 또는 참여하는 연행 사례는 여성공동체 춤으로 연행되는 강강술래와 서클댄스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 및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는 전문 무용수의 춤추는 의미와 공동체 춤 연행 참가자의 춤추는 의미를 동일한 논의 선상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와 함의는, 여성공동체 춤으로 연행되는 연행 사례들, 특히 연구수행을 위해 관찰하고 면담을 수행한 제한된 단체와 면담자 경험에 한 정됨을 밝힌다.

#### 나. 전남 강진군의 토종식당 개장행사의 강강술래예술단

- 일시: 2020년 10월
- 장소: 전남 강진군 내 토종식당
- 행사 목적: 토종식당 개장 행사로 지역민 참여 독려 및 홍보
- 참여자: 강강술래예술단 9명과 지역 풍물패 5인

강강술래는 2020년 10월 전남 강진군의 토종식당 개장행사에서 인근 해남강강술래예술단의 연행 과정을 참여 관찰했다. 이날 행사는 토종식당의 개장을 축하한 것으로 강강술래예술단 9인과 지역 풍물패 5인이 참여했다. 강강술래예술단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전승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는 목적으로 결성, 운영되었다. 지역 여성들은 예술단의 공연 활동을 통해 여성공동체 구성과 유지,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도시와 연계한 농산물 소비와 토종농산물 식당 개장 등과 같은 사회적 의제와 연결된 지역 행사의 참여에 자부심을 보였다. 이들은 전통춤의 연행이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다는 데에 참여의 의미를 두고, 동시에 이런 공적 활동이 사회참여의 계기이자 통로가 됨을 확인했다.

참여자는 60-70대의 지역 여성으로 구성되며, 군, 면 단위의 행사 참여가 주요 활동이었다. 이들을 이끄는 강강술래예술단장은 한국무용 전공자로 20년 이상 강강술래예술단을 지도하고, 단체를 운영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참가자들은 공연을 위한 복장으로 하얀 저고리에 빨간색 치마의 무용복을 통일되게 입었고, 머리는 길게 땀은 머리 가발을 착용했다. 또한 공연을 위한 무대용 화장을 직접 하거나 서로 도와주었다.

예술단은 강진군과 인접 군에 거주하는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다. 예술단원의 출신 지역 또는 소속 행정구역은 군내의 여러 읍면 거주자가 연합한 형태이며, 소수는 인접 군 거주자도 참여하고 있다. 과거의 강강술래예술단이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구성되었던 데에 반해 지역 인구 감소 및 참여자 감소에 따라 예술단의 지역 범위가 군단위로 확대되었다. 한편 공연용 의상이 갖춰져 있고, 무대용 분장과 가발 착용 등은, 강강술래예술단이 무대화된 강강술래의 연행을 위한 전문무용단으로 결성되어 활동함을 보여준다. 60대 이상 중년 또는 고령의 예술단의 화장과 땀은 머리 분장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춤으로서 일상 예술로 행해진 강강술래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역 행사의 후반 순서로 소개된 강강술래예술단장의 <살풀이춤> 공연에 이어 예술단 군무로 강강술

래가 시작되었다. 앞소리에 따라 춤과 놀이가 진행되었는데 원형 대형의 원무로 시작하여 해남강강술래의 다양한 놀이인 청어여기와 고사리꺾기 등을 시연한 뒤 다시 원형 대형의 강강술래를 연행했다. 강강술래 공연의 마무리는 행사에 참여한 방문자와 관람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강술래로 마쳤다. 예술단장이 앞소리로 춤과 놀이를 이끌면 참여자 전체가 ‘강강술래’라고 뒷소리를 하며 원무를 쳤다. 진행 속도의 완급은 예술단 연행자에 의해 조절되었다.

#### 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내부 서클댄스 소모임의 정기 연행

- 일시: 2021년 5월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소재 여성단체 강의실
- 행사 목적: 여성단체 내 서클댄스 소모임의 정기모임(주 1회)
- 참여자: 단체 회원 10명

서울시 소재의 여성단체 내부에 결성된 서클댄스 소모임의 정기 연행을 참여 관찰했다. 2021년 5월 17일 오전 10시, 소모임이 수시 대관한 여성단체 강의실에서 진행된 정기 모임에 약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60-70대 여성단체 소속 회원과 참여회원의 지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벼운 일상복 차림을 했으나 다수가 바지보다는 치마 차림으로 참여했다. 서클댄스의 연행 참여는 의상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참여자들은 폭과 길이가 넉넉한 치마 차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은 국내에 서클댄스가 소개된 초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하여 서클댄스 연행에 참여해 왔다. 참여자 다수는 서클댄스에 매료되어 핀드혼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1-2주일 기간의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국내의 서클댄스 안무가 또는 활동가를 모임에 초빙하거나 관련 워크숍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하는 등 활동에 적극적이다.

춤의 연행은 녹음된 음악에 맞춰 서클댄스의 레퍼토리를 함께 연행하는데 연행 중에는 지도자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어지는 연행에서 레퍼토리의 지도는 공동으로 또는 참여자가 돌아가며 맡는다. 이는 레퍼토리를 미리 배웠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악과 춤사위의 순서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성찰하도록 이끈 뒤 춤을 시작한다. 서클댄스는 원형 대형을 유지한 상태로 좌우, 전후, 사선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며 다양한 스텝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춤사위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특성이 있다.

서클댄스 소모임 참여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서 다수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수련이자 명상을 이유로 제시했고, 여성단체 내부의 결속과 공동체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의제로서 생태와 환경 담론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고, 서클댄스 참여가 단체회원의 소속감 확인과 연대에 유용한 활동으로 인식한다.

#### 라. 여성단체 주관의 문화기행 속 서클댄스 연행

- 일시: 2022년 5월
- 장소: 경남 거제시 둔덕면 일대
- 행사 목적: 여성단체의 생태문화기행 행사 일부로 연행
- 참여자: 생태문화기행 참여자 25명

여성단체의 생태문화기행에서 행해진 서클댄스 여행을 참여, 관찰했다. 이날 여행은 정기성 또는 지속성이 없는 여행이 특성이다. 참여자는 여성단체의 생태문화기행에 참여한 50대에서 70대 여성 25명 내외이다. 문화기행 중 즉흥적으로 행해진 춤 활동으로 참여자의 복장은 편안한 여행복과 운동화 차림이다.

문화기행 참여자 중 서클댄스를 추어온 경험자가 레퍼토리의 제목과 의미를 설명하고, 1-2회 춤사위를 시연한 후 서클댄스를 진행했다. 야외 공간에서 진행됨에 따라 들꽃과 들풀을 꺾어 원형 대형의 가운데에 센터피스를 마련했다. 서클댄스의 경험이 없는 참여자에게 레퍼토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감을 나누는 뒤 춤을 진행했다. 춤이 행해진 거제군 둔덕면의 산성은 마고여신의 신화가 전해진 곳으로 그 정기와 의미를 느끼며 서클댄스를 여행하도록 유도했다. 서클댄스 여행을 처음 접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전통문화 속 여성 신화에 춤의 의미를 연결하고, 일종의 의례로 진행되는 상황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는 점이 관찰된다. 춤을 배우고 함께 여행하는 참여자의 여흥이자 의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 2.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여행의 상호문화성

### 가. 강강술래 여행의 상호문화성

한국의 강강술래는 전통적인 민속춤으로 춤과 춤문화의 원형을 유지한 공동체춤으로 여행된다.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놀이의 보존, 전승을 위해 도입했던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정책적 지원 아래 강강술래는 살아남은 전통으로 여행되고 있다. 전남 해안지역 마을의 강강술래보존회나 민속무용단 활동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지속되는데 이들 단체의 성격은 강강술래 보존을 목적으로 정책적 지원 속에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단체를 구성했다. 이는 과거의 자연발생적 춤공동체 단위와는 차이가 있다. 단위 공동체의 세시풍속과 절기에 맞춰 행해졌던 과거의 행태만이 아니라 민속경연이나 도시화된 지역 일상의 행사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춤 활동의 범위에서 변화도 관찰된다.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존재하던 강강술래 예술단이 참여 인원 감소로 읍면 단위로 명맥을 유지하며, 인접한 읍면 단위가 통합하고 있다.

강강술래는 전통춤 보존을 위한 지역단체 단위로 강강술래 여행 공동체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문화적 연결이 자연발생적이고 그 결속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단위의 자연발생적이고 강한 결속력에 변화가 관찰된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결혼 이후 여성의 참여가 특이점으로 관찰된다(광주 MBC, 2006). 이 사례는 여행참여자가 속했던 문화 전통의 이질성을 넘어 공동체 참여와 지역민으로의 적응 및 정착하는 데에 강강술래 여행 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곧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여성이 여성공동체 춤 활동을 통해 지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여행참여자의 춤추는 의미도 지역 여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동체 춤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결속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의 효과와 함께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하는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가 강강술래무용단 활동에서 느끼는 효능감은 여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확인의 측면이 강함을 면접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서클댄스 연행의 상호문화성

서클댄스는 유럽 민속춤에 기초하여 지난 세기 후반에 새로 만들어진 춤이다. 세계 전역에서 지역 내부에 전해진 전통문화가 전승 보존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살아남는다면, 서클댄스는 전통문화 속 민속춤에 기반을 두었으되 오늘의 춤으로 창조와 향유를 거듭하는 살아있는 전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서클댄스 단체의 경우 생태 환경과 여성문화, 여성과 명상 등 동시대 담론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 여성의 문화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관찰된다.

서클댄스의 연행 단체는 1990년대 말부터 20여 년 동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이 창조되어 세계화하는 서클댄스의 레퍼토리를 외부로부터 흡수해오고 있다. 또한 초기 소수의 서클댄스 연행 단체를 모단체로 하여 여러 개의 소모임이나 단체들로 분화하며 국내 서클댄스 모임을 확대해왔다. 이로써 2020년대 현재 다수의 소규모 서클댄스 연행 단체가 공존하며, 각기 다른 사회적 의제 및 담론과 결합한 시민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연행되고 있다.

서클댄스의 레퍼토리는 영국과 유럽, 그 외 세계 각지의 서클댄스 안무가나 교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서클댄스 단체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전달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지구적 연결망을 갖추고 지역간 또는 안무자간 교류와 의제 참여 및 연대를 실행한다. 국내 서클댄스 연행단체도 이들 연결망을 통해 동시대 담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레퍼토리의 흡수 및 확산에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 서클댄스 단체의 춤 연행과 춤추는 의미에서 동시대 사회적 의제와 입장을 소통하고 연대하는 여성지도자 단체의 실천적 성격을 확인하게 된다.

서클댄스는 도시 내 동시대 담론과 의제를 중심으로 연행모임이 유지된다. 동시대 세계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각성이 서클댄스 레퍼토리의 학습과 연행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여성 지도자 수련 활동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클댄스의 경우 춤 전공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서클댄스 수련으로 춤 문화와 사회적 실천 역량을 형성하여 독립적인 서클댄스 모임 구성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기법이나 춤사위, 레퍼토리가 고정된 전통춤과 달리 서클댄스는 창작과 안무로 새로운 종목의 생산과 보급이 지속되고 있다.

## 다. 두 원무 연행의 유사성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두 원무의 연행되는 양태는 다르다. 우선 원무 단체의 구성 목적과 구성의 자발성에 차이가 있다. 강강술래가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단체를 구성했다면, 서클댄스는 외부 문화로부터 유입된 춤을 동시대 사회적 의제의 공유와 실천을 위해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단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두 춤은 연행 종목의 반복과 창의적 확대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강강술래가 전승된 춤을, 곧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행순서와 내용을 반복하며 춤의 보존에 연행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반해 서클댄스는 동시대 지구적 의제와 연결된 새로운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연행참여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가 관찰한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단체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은 두 원무 단체 구성원의 고령화와 지역 인구의 감소, 기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여성의 사회

적 소통 및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동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연행참여자의 현실 인식과의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강강술래의 경우 단체 구성 초기에는 강강술래의 보존, 전승의 주체로서의 자부심이 춤 연행의 의미로 강조되었다면, 2020년대 약 40년 활동으로 구성원이 고령화되고, 후속세대의 유입이 쉽지 않는 현재의 춤 활동은 구성원의 소통과 결속, 건강 유지 및 전승 활동의 지속 노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점은 도시에 결성된 서클댄스도 참여자의 고령화에 따라 춤 공동체의 중심의미에 관련 의제를 포함하는 경향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 서클댄스는 생태 및 환경과 기후 위기, 젠더 등 사회적 의제와 여성의 춤 활동을 연결하며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는 이와 함께 참여자의 신체활동과 건강,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치유 등에 춤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 원무 연행은 공동체 춤으로서 구성원의 신체와 건강, 정서적 안정과 치유, 단체 결속의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춤인 강강술래와 세계화된 유럽의 서클댄스가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고, 여성 참여자에게 향유되고 있으며, 문화 전통의 이질성에도 연행참여자의 춤추는 의미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유럽과 한국이라는 각기 다른 문화 전통에서 출현하여 다른 역사적 전개 과정을 거쳐 온 두 춤이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연행자로 참여하는 공동체 춤으로 연행되는 가운데 연행 참여자가 경험하는 춤추는 의미가 유사함을 원무 연행의 사회문화적 맥락인 동시대 한국 사회와의 관련성, 곧 두 원무와 한국사회의 상호문화성에 따른 것으로 관찰했다.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연행되는 원무를 전승된 문화예술 활동이자 근대 이후에도 새로이 출현하며 지속되어온 여성공동체의 춤 사례로 접근했다. 20세기 근대화과 세계화로 민속춤 연행의 맥락과 문화가 상실, 훼손되었고, 공동체 기반의 활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여성 공동체춤으로서 원무의 전통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통과 연행 양태의 차이에도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이 관찰되는 것은,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참여자에 의해 연행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인함을 상호문화성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강강술래를 사례로 시간축을 따라 지역 내부에 전승된 원무 전통과 그 상호문화적 변용을 주목했고, 서클댄스를 사례로 지리적 경계라는 공간축을 따라 이동한 이질적 문화공간인 한국 사회로 유입되고 수용된 서클댄스의 상호문화적 변용을 관찰했다. 이어 두 사례가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공동체 춤으로 연행되는 가운데 연행참여자의 춤추는 의미가 유사함을 조사했다. 동시대 여성공동체 춤으로서 이질적 원무의 연행에 나타나는 다양성으로서의 차이와 동질성으로서 춤추는 의미의 유사성을 확인했다.

강강술래와 서클댄스 연행 단체의 참여관찰과 면접 등이 제한된 범위의 조사대상과 면담자 경험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한정적임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그럼에도 각 원무 전통의 연행 현장을 조사하고, 그 상호문화적 성격을 관찰했으며, 이를 교차하여 차이와 유사성을 도출하려 했다. 곧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춤 연행과 참가자 경험에서 지역 내부 춤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접근한 상호문화성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원무 연행의 다양한 양태 및 확산과 그 상호문화적 논의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김정희(2013). **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강진, 해남의 지역예술과 여성.**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Wosien, G. M.(2021). **영원의 춤,** 신성무 (김기선 편역). 21세기문화사. (원저출판 1988).
- Mall, R. Adhar(2000). **Intercultural Philosophy.** Rowman & Littlefield.
- Shannon, L. (2011). ‘Women’s Ritual Dances: An Ancient Source of Healing in our Time’, **Dancing on the Earth: Women’s Stories of Healing Through Dance**(Johanna Leseho and Sandra McMaster Ed.). Findhorn Press.
- 고현정, 김정옥, 최명선, 문소영(2019). 신성원무의 수렴적 움직임과 음악 기반 통합예술치료 실행 연구: 의례의 치유성과 심상체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2), 59-91.
- 김혜정(2017). 문화재 강강술래의 형성과정과 전승방안. **한국민요학**, 49(1), 109-131.
- 박인철(2017). 상호문화성과 동질성:상호문화성에서 동질성의 의미와 그 철학적 함축. **코기토**, 82, 34-69.
- 서해숙(2013). 지역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속문화의 전통과 변화. **한국민속학**, 57, 205-236.
- 오강원(2019). 강강술래의 기원과 어의 연구-부리아트족 요호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55, 125-180.
- 윤지현(2013). 세계화 시대 한국춤의 경계-한국전통춤의 전승에 대한 문화상호적 접근. **민족미학**, 12(1), 39-68.
- 이경엽(2009). 단절 위기 공동체 놀이의 전승 현황과 계승 방향-강강술래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9, 299-332.
- 이옥희(2010). 신문기사를 통해 본 강강술래 전승의 통시적 고찰-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21, 143-175.
- 이윤선(2004).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 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속학**, 40, 369-396.
- 채희완(2003). 제천의식과 한국춤의 원류. **민족미학**, 2, 117-151.
- 최현덕(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상호문화철학의 기본과제. **코기토**, 66, 301-329.
- Berni, Luiz Eduardo V.(2011). The Sacred Circle Dance and the Numinous. **The Rose+Croix Journal**, 18, 148-158.
- Johnson, Robyn(2019). Dancing in Circles: Fanonian and Benjaminian Violence in Sherman Alexie’s Flight.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42(2), 137-146.
- Kraidy, M. M.(1999). The Global, the Local and the Hybrid: A Native Ethnography of Glocalisat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6, 456-476.
- Lukina, Angelina(2018). Osuokhai, The Yakut Circle Dance. Sibirica. **Berghahn Books**, 17(3), 60-67.
- Nowicka, Ewa(2016). Siberian Circle Dances: the New and the Old Communitas. **Polish Sociological Review**, 249-260.
- Olsen, Sarah Elizabeth(2016). **Beyond Choreia: Dance in Ancient Greek Literature and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hannon, L.(2015). *Traditional Circle Dance and the Roots of Ritual*. laura@laurashannon.net.
- Sheets-Johnstone, Maxine(2019). A Jungian perspective on the unity of mind and body and its relevance to 21st-century politics. *Psychother Politics Int*. 2019,17, e1510. <https://doi.org/10.1002/ppi.1510>.
- Strelitz, L.,(2004). Against Cultural Essentialism: Media Reception Among South African Youth. *Media, Culture & Society*, 26(5), 625-641.
- Tursun G., Zukhra I., Aliya K., Saltanat A., Zarina M.(2016). Circle Dance as a Symbolic Form of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4(5), 75-84.
- Walter, Ofra(2011). Circle Dance vs. Free Dance: Their Influence on Self-Control, Regulation and a Sense of Security in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4(11), 79-88.
- 이병욱(2014. 04). 인도 구마르춤, “에세이\_북인도 춤문화기행(3) 라자스탄지방의 민속춤-칸다리아 민속극장”. 춤웹진. <[http://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545&board\\_name=rating&page=21](http://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545&board_name=rating&page=21), 2022. 10. 10>.
- 광주 MBC(2006). “아픈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강강술래 [다큐프라임]UNESCO Intangible Heritage; Korean Circle Dance”.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GqIu5O0xhA>, 2022. 10. 10>.
- Jordan, Diane(2019. 07. 03). “Circle in African dance”. *The Circle Way*. <<http://www.thecircleway.net/articles/2019/7/3/circle-in-african-dance>, 2023. 10. 25>.
- Dilouambaka, Ethel(2023. 11. 29). “Traditional Greek Dances You Should Know About”. *Culture Trip*. <<https://theculturetrip.com/europe/greece/articles/7-traditional-greek-dances-you-should-know-about>, 2024. 02. 20>.
- Koffman, Spencer(2020. 04. 04). “Planetary Dance-Introduction”. *Planetary Philosophy*. <<https://www.planetaryphilosophy.com/planetary-dance/>, 2022. 10. 25>.
- Peterdi, Gwyn(2014). “What is Circle Dance?”. *World Circle Dance*. <<http://danzacircular.com/>, 2023. 01. 10>.
- Scott, Rowan(연도미상). “Sacred Circle/World Dance”. *Neskaya*. <<https://neskaya.com/about-circle-dance/>, 2024. 05. 10>.
- Watts, June(연도미상). “About Sacred Circle Dance”. *Circle Dancing*. <<https://junewatts.com/wwwcd.php>, 2024. 05. 10>.

논문투고일 2024. 05. 15.  
심사일 2024. 05. 25.  
심사완료일 2024. 06. 06.



## Abstract

# A Study on Interculturality of Performing Circle Danc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 Focusing on Ganggangsullae and Circle Dance –

**Yoon, Jihyun**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universality of participants' dance meanings at the performance sites of Ganggangsullae, a traditional dance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and Circle Dance, which was adopted in Korea during the process of cultural globalization in the 1990s. It approaches the universality of dance meanings observed in the performances of the two circle dances as intercultural cases of dances originating from disparate cultural traditions. Ganggangsullae and Circle dance coexist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community dances in which women are the main performers. Despite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the two dances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performance styles, the study mentions the similarity of the participants' dance meanings observed at the performance sites of each dance. In doing so, it argues that the universality of the dance meanings of the two dances is linked to the intercultural nature of Korean society and the dance tradition.

Keywords: Circle Dance(원무), Community Dance(커뮤니티댄스), Ganggangsullae(강강술래), Interculturality(상호문화성), Globalization(세계화)